

APEC에 있어서 ASEAN의 입장

김 기 홍*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ASEAN과 APEC의 무역 구조 분석
- III. ASEAN의 경제협력추이와 조직적인 특징
- IV. APEC내에서 ASEAN의 역할
- V. AFTA와 APEC와의 관계
- VI.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는 지역 경제 통합이 다자주의에 관련 하여 좋은지 나쁜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통합이 Bhagwati (1991)의 주장대로 "Building blocs 또는 Stumbling blocs" 인가? 그리고 다자주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에 관 하여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WTO체제하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지역 통합기구, EU, NAFTA, APEC 등이 출현하게 되고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무역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처음에 정부간 협력조직으로 1989년 11월에 발족하였다. 그러나, APEC의 지명도가 발족당시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다. APEC의 이름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3년 11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회 각료회의와 제1회 비공식수뇌회의에서 부터이다. 9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회 각료회의와 동 보고르에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서 개최된 제2회 비공식수뇌회의에서 동지역에서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APEC 이 아직 비공식적인 조직인가 또는 더 공식적인 지역 구조로 발전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APEC은 제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가? APEC과 ASEAN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아·태 지역은 EU, NAFTA에 비해 발전 단계, 경제규모, 자원부존도 등의 격차가 크며 이질적인 정치, 문화, 종교,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 사이의 이해대립,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인 ASEAN 사이의 의견 차이, 아시아 지역과 非아시아 지역의 견해 차이가 큰 편이다. 또한 회원국들간의 國際政治的 力學關係와 민족 감정, 민족주의 문제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APEC이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APEC 발전의 장애요인인 지도력의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機構化의 진전이 필요하다. 둘째, 회원국간의 상이한 이익의 調和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 협력의 이익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거나 보호주의적 성향의 대두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APEC의 향후 진로와 관련되어 중요한 과제로는 우선 貿易·投資 자유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 APEC내 자유화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각국별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의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자유화를 둘러싼 선진국, 개도국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천가능한 자유화 일정의 도출이 필요하다.

미국의 주도권 행사를 둘러싼 미국과 아시아와의 관계 정립도 향후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선진권과 아시아(일본 제외)의 정치·경제 관계가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 APEC의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즉 개도국과 신흥공업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아시아 경제권이 미국, 일본의 선진국 경제권과 어느 정도 조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APEC내에서의 미국 獨走可能性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은 APEC이 느슨한 자문기구(loose and consultative body)에서 보다 공식적인 협상기구(more formal negotiating body)로 전환하자는 미국의 노력에 대하여 반대견해를 선언하였다(Nesadurai 1996, 32).

장기적으로 APEC이 NAFTA, EAEC, AFTA 등 소지역경제권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이다. 적절한 역할 조정을 통하여 대립과 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소지역주의 경제권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틀을 제공하면서 경제협력의 포괄적인 구심체로써 이들을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경제통합은 시장의 힘에 의하여 움직여 왔다. 이와 같은 시장통합의 과정은 1950년대 중반이후 유럽에서 EC의 발전과정에서 특징지워진 제도적인 통합과 명확히 구분된다.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공식적인 지역협력구조의 창설을 통하여 조직화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지역협력체의 구성에 대한 수요는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의 증대에 따라서 역효과를 감소시킬 필요성 때문이다. 그 첫번째 요인은 냉전이후 이 지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경제협력분야를 포함하여 지역협력체를 구성할 필요성이다. 두 번째 요인은 UR 타결이후 태평양연안의 국가들이 각기 다른 경제 구름으로 분할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개발도상국이 기피하는 선진국과의 국제분업이 부활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비슷한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협조하여 공업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의 내용에서 그 목적은 시장규모가 협소한 개발도상국들이 협조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시장 규모의 제약을 완화하여 제조업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역협력이 1950~1960년대에 다수 탄생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 동남아시아에서 발족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성공한 지역협력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ASEAN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ASEAN 경제의 주체가 다양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차 대전 前에 식민지 종주국, 경제력을 보유한 화교, 경제적인 특혜를 받은 현지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발생하였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다수의 국가들은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자국민의 경제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ASEAN은 이를 위하여 지역협력 및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여 자국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EAN이 가맹국들의 다양성에서 초래된 마찰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경제주체 및 산업조직의 특성을 검토하고 1980년대의 경제정책

의 수렴 및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2절에서 ASEAN의 무역구조 변화, ASEAN과 APEC사이의 무역보완관계 등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APEC내에서 ASEAN의 역할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ASEAN의 경제협력추이와 조직적 특징을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AFTA와 APEC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6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ASEAN과 APEC의 무역 구조 분석

ASEAN과 APEC 국가들에 있어서 무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EC의 국가들의 무역은 1980-91년의 기간동안에 전 세계의 평균성장율인 년 5.6%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년 8.0%로 성장하였다. APEC의 역내무역은 년 9.7%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무역의 확대에 있어서 ASEAN-5(즉, 브루네이는 제외)은 년 8.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ASEAN-5와 NAFTA 사이의 무역은 년 9.6%로 증가하여 왔다. 더욱이 ASEAN-5와 NIEs국가들과의 사이에 무역은 두 자리의 숫자로 증가하여 왔다(<표 1> 참조).

<표 1> 쌍무간 및 역내지역 무역의 평균 성장률(1980~1991)

(단위:%)

	세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NAFTA	ANIE-3	ASEAN-5	APEC
세계	5.61	5.07	5.99	4.00	7.00	11.40	8.63	7.59
일본	8.34	-	6.05	4.32	10.07	11.54	10.07	9.91
오스트레일리아	6.05	6.44	-	6.56	4.49	14.21	10.14	7.35
뉴질랜드	5.34	7.60	8.86	-	4.68	11.43	6.10	7.08
NAFTA	6.16	7.51	6.20	4.27	8.29	10.67	7.70	8.24
ANIE-3	13.06	13.52	8.81	3.34	13.32	15.35	12.52	14.34
ASEAN-5	8.27	4.27	7.43	3.47	9.60	9.71	9.42	7.99
APEC	8.03	7.16	7.05	7.80	9.35	12.62	9.78	9.69

자료: Abe, 1994, "Prospects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n and Pacific Rim, Kobe University.

ASEAN 수출에 있어서 북미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여 왔다. 흥미로운 것은 ASEAN 수출의 역내 ASEAN 비중은 최근에 북미의 비중을 압도하기 시

작하였다. 비록 ASEAN 수출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NIEs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ASEAN의 수출에서 오스트렐리아의 비중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왔다. ASEAN의 수출국으로서 기타 APEC 국가들의 비중은 감소하여 왔지만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SEAN과 기타 APEC국가들과의 강한 무역관계는 <표 2>에서 무역 강도 지수(trade intensity index)¹⁾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이 지수가 1980년과 1991년 사이에 하락하였지만, ASEAN-5와 미국, 일본 및 중국, 그리고 ASEAN-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과 아시아 NIEs(싱가포르 포함)들과의 사이에 무역의 면에 있어서 1보다 크다. ASEAN-5와 APEC 전체와도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SEAN-5와 NAFTA와의 사이에 무역강도지수가 1보다 적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와 ASEAN-5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징은 APEC이 어느 지역보다 ASEAN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표 3>에서 부터 <표 6>에 나타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ices)²⁾는 ASEAN의 수출과 수입의 비교우위지수의 변화는 APEC내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과 보완관계를 유지한다. 1981년에 “연료, 광물 및 금속”에서만 수출에 대하여 강한 현시비교우위 (RCAX)를 나타낸 인도네시아는 1991년에 기타 1차제품과 섬유 및 의류 제품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또한 기타 제조업 제품에서 RCAX의 지수가 개선되었다. 1981~91년의 기간동안에 말레이시아는 1차제품과 기계류 및 수송제품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필리핀은 1981년과 1991년 사이에 기타 1차제품과 기타 제조업 제품에 대하여 RCAX지수가 1이상 되어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태국은 비금속 1차광물제품, 섬유 및 의류제품에 있어서 같은 기간동안에 RCAX지수가 1이상 되었지만 기타 제조업제품에 대한 RCAX는 1991년까지 1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기계류 및 수송제품에 대하여는 그 지수가 1이하이지만 RCAX지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있다.

1) 무역강도지수는 수출국의 총수출에서 수입국의 비중을 전 세계의 수입에서 수입국의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2) $RCAX = X_i^k / X_i + X_w^k / X_w$, $RCAM = M_i^k / M_i + M_w^k / M_w$,

여기서, $X_i^k = k$ 재의 i 국 총수출, $X_i = i$ 국의 총수출, $X_w^k = k$ 재의 세계총수출, $X_w =$ 세계 총수출

$M_i^k = k$ 재의 i 국 수입, $M_i = i$ 국의 총수입, $M_w^k = k$ 재의 세계총수입, $M_w =$ 세계총수입.

<표 2> 쌍무간 및 역내무역강도지수

	APEC	NAFTA	ANIE-4	ASEAN-4	ASEAN-5	USA	일본	중국	비APEC
1980									
APEC	1.77	1.61	1.96	2.41	2.28	1.36	1.69	1.96	0.64
NAFTA	1.72	2.04	1.63	1.16	1.06	1.39	1.65	0.38	0.66
ANIE-4	2.08	1.15	2.00	3.78	3.34	1.49	3.25	5.74	0.49
ASEAN-4	2.18	1.06	4.66	1.57	4.09	1.37	3.45	2.10	0.44
ASEAN-5	2.07	0.95	3.44	4.43	4.92	1.22	2.95	1.94	0.49
미국	1.50	1.33	1.97	1.48	1.34	-	1.94	0.43	0.76
일본	1.59	1.27	1.54	5.29	4.11	1.44	-	3.41	0.72
중국	1.55	0.29	2.17	0.87	1.11	0.00	4.16	-	0.74
비APEC	0.66	0.73	0.57	0.37	0.43	0.84	0.69	0.57	1.16
1991									
APEC	1.71	1.63	1.89	1.84	1.81	1.38	1.61	2.06	0.51
NAFTA	1.70	2.19	1.44	1.03	1.05	1.47	1.70	0.50	0.51
ANIE-4	1.83	1.01	1.39	2.56	2.15	1.29	2.49	6.11	0.42
ASEAN-4	1.82	0.78	3.04	1.38	3.78	0.99	2.84	1.03	0.43
ASEAN-5	1.81	0.81	2.39	3.60	4.05	1.06	2.58	1.24	0.43
미국	1.59	1.49	1.77	1.30	1.33	-	2.06	0.61	0.59
일본	1.54	1.54	1.71	3.74	2.87	1.85	-	2.31	0.62
중국	1.62	0.16	5.21	1.30	1.12	0.00	1.50	-	0.57
비APEC	0.57	0.62	0.51	0.49	0.51	0.77	0.63	0.35	1.30

주 : APEC 은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ASEAN-6, 중국, 대만, 홍콩 및 멕시코, 이란, 파푸아뉴기니는 제외한다. ANIE-4는 한국, 홍콩, 대만 및 싱가포르이다.

자료: Abe, 1994, "Prospects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the Pacific Rim, Kobe University.

이와 같은 특징은 태평양 연안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패턴 변화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기계 및 수송장비와 기타 제조업에 있어서 일본과 미국의 비교우위는 1981~91년의 기간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표 3> 에서 <표 4>). 이와 같은 패턴은 <표 5>과 <표 6>에서 나타난 수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제품에 대하여 더 높은 RCAX와 RCAM 지수는 제조업체 품가운데 더 높은 수입비중으로 발생하며 산업내 무역이 중요하게 된다.

<표 3> 수출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RCAX) (1981)

	연료, 광물, 금속	기타 1차상품	기계류 및 수송장비	섬유 및 의류	기타 제조업
일본	0.029	0.132	4.977	0.526	3.718
중국	0.751	1.661	0.478	3.025	3.056
한국	0.070	0.649	2.366	4.857	4.834
홍콩	0.034	0.158	1.886	6.627	4.587
오스트레일리아	0.852	2.502	0.473	0.119	1.680
뉴질랜드	0.127	4.344	0.311	0.351	1.288
파푸아뉴기니	1.228	3.203	0.016	0.246	0.019
필리핀	0.320	1.798	0.183	0.644	2.528
말레이시아	1.054	2.974	1.074	0.404	0.530
인도네시아	1.712	0.619	0.063	0.095	0.149
싱가포르	0.779	0.930	2.135	0.495	2.526
태국	0.203	3.801	0.387	1.166	1.100
멕시코	1.051	1.368	1.565	0.327	1.657
캐나다	0.804	1.569	2.645	0.142	2.570
미국	0.158	1.195	3.028	0.207	1.954

자료: World Bank, 1983, 1984,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4> 수출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RCAX) (1991)

	연료, 광물, 금속	기타 1차상품	기계류 및 수송장비	섬유 및 의류	기타 제조업
일본	0.077	0.077	1.784	0.333	0.906
중국	0.692	1.154	0.514	4.667	0.906
한국	0.231	0.308	1.027	3.500	1.063
홍콩	0.154	0.231	0.649	6.667	1.000
대만	0.154	0.462	1.027	2.667	1.219
오스트레일리아	2.692	2.154	0.189	0.167	0.875
뉴질랜드	0.615	5.000	0.135	0.333	0.625
파푸아뉴기니	4.769	2.692	0.054	0.000	0.031
필리핀	0.692	1.538	0.378	1.500	1.500
말레이시아	1.308	1.692	1.027	1.000	0.531
인도네시아	3.385	1.231	0.054	2.333	0.781
싱가포르	1.385	0.615	1.297	0.833	0.656
태국	0.154	2.462	0.595	2.833	0.875
멕시코	3.154	1.077	0.649	0.333	0.563
캐나다	1.462	1.308	1.027	0.167	0.781
미국	0.462	1.077	1.297	0.333	0.938

자료: World Bank, 1993,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5> 수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RCAM) (1981)

	식료품	연료	기타 1차 상품	기계류 및 수송 장비	기 타 제조업
일본	1.244	3.082	2.159	0.250	0.449
중국	1.154	0.455	2.629	2.469	2.215
한국	0.697	1.466	2.294	1.237	1.012
홍콩	0.705	0.185	0.892	0.992	1.979
오스트레일리아	0.531	0.503	0.484	1.397	1.343
뉴질랜드	0.821	0.648	0.624	1.189	1.269
파푸아뉴기니	1.601	0.668	0.286	1.120	0.899
필리핀	0.469	0.793	0.712	0.545	0.866
말레이시아	0.548	0.288	0.694	1.573	0.770
인도네시아	0.444	0.630	1.213	1.250	0.797
싱가포르	0.557	1.025	0.564	1.279	0.835
태국	0.450	0.688	1.093	1.098	0.960
멕시코	0.761	0.129	0.660	0.697	0.503
캐나다	0.723	0.457	0.731	1.922	1.150
미국	0.774	1.119	0.980	1.656	1.341

자료: World Bank, 1993,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6> 수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RCAM) (1991)

	식료품	연료	기타 1차 상품	기계류 및 수송 장비	기 타 제조업
일본	1.667	2.300	2.143	0.457	0.769
중국	0.667	0.300	1.296	1.171	1.051
한국	0.667	1.600	1.857	0.971	0.795
홍콩	0.667	0.200	0.714	0.771	1.538
대만	0.667	1.000	1.714	1.029	0.923
오스트레일리아	0.556	0.600	0.429	1.200	1.154
뉴질랜드	0.889	0.800	0.751	1.057	1.128
파푸아뉴기니	1.889	0.900	0.286	1.086	0.872
필리핀	0.778	1.500	0.743	0.743	1.179
말레이시아	0.667	0.400	0.571	1.571	0.769
인도네시아	0.556	0.900	1.266	1.266	0.821
싱가포르	0.667	1.400	1.257	1.257	0.821
태국	0.556	0.900	1.114	1.114	0.974
멕시코	1.556	0.300	1.171	1.171	0.846
캐나다	0.667	0.500	1.457	1.457	0.872
미국	0.667	1.100	1.171	1.171	0.949

자료: World Bank, 1993,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7> 쌍무간 및 역내 보완지수 (1981)

	일본	중국	NIEs*	ASEAN**	오스트 렐리아	뉴질랜드	파푸 뉴아기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일본	-	2.566	1.391	1.158	1.485	1.330	1.181	0.675	1.731	1.664
중국	1.634	-	1.563	0.997	1.222	1.278	1.164	0.632	1.201	1.513
NIEs*	0.746	3.124	-	1.282	1.847	1.728	1.840	0.766	1.803	1.960
ASEAN**	1.654	1.507	1.064	-	0.758	0.852	0.915	0.494	0.864	1.107
오스트렐리아	1.856	1.520	1.212	0.769	-	0.875	0.952	0.505	0.882	1.128
뉴질랜드	1.916	1.452	1.093	0.745	0.706	-	0.936	0.494	0.783	1.092
파푸아뉴기니	2.391	1.311	1.063	0.736	0.573	0.776	-	0.505	0.685	1.063
멕시코	1.635	1.773	1.193	0.879	0.916	0.985	1.022	-	1.055	1.275
캐나다	1.558	2.264	1.426	1.094	1.213	1.230	1.211	0.680	-	1.580
미국	0.837	1.985	1.137	0.941	1.102	1.043	0.978	0.565	1.319	-

* NIEs : 한국, 홍콩 및 대만, 여기서 싱가포르를 제외

**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여기서 브루나이는 제외

자료 : World Bank, 1983, 1984,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8> 쌍무간 및 역내 보완지수 (1991)

	일본	중국	NIEs*	ASEAN**	오스트 렐리아	뉴질랜드	파푸 뉴아기니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일본	-	1.080	0.940	1.082	1.126	1.032	0.979	1.023	1.024	1.052
중국	1.012	-	1.041	0.937	1.016	0.029	0.961	0.936	0.913	0.966
NIEs*	0.755	1.078	-	1.012	1.137	1.088	0.970	0.977	1.066	1.029
ASEAN**	1.180	0.960	0.989	-	0.947	0.977	1.014	0.991	0.950	0.962
오스트렐리아	1.538	0.821	0.975	0.870	-	0.884	1.004	0.931	0.717	0.888
뉴질랜드	1.679	0.759	0.973	0.871	0.707	-	1.032	0.946	0.686	0.885
파푸아뉴기니	1.994	0.706	0.931	0.854	0.558	0.779	-	0.965	0.697	0.854
멕시코	1.384	0.872	0.954	0.941	0.815	0.902	1.027	-	0.842	0.936
캐나다	1.099	0.970	0.972	1.010	0.953	0.973	1.027	1.012	-	0.988
미국	0.867	1.048	0.987	1.062	1.064	1.300	1.023	1.035	1.109	-

* NIEs : 한국, 홍콩 및 대만, 여기서 싱가포르를 제외

** ASEAN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여기서 브루나이는 제외

자료 : World Bank, 1993, *World Development Report*.

ASEAN과 기타 APEC국가들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는 RCAX과

RCAM지수뿐만 아니라 무역보완지수(complementary indices)³⁾에서도 반영된다. 무역보완성(complementarity)은 한 국가의 상품 수출 유형이 세계 수입 유형에 비해 특정 상대 국가의 수입 유형과 어느 정도 밀접한가를 나타낸다. ASEAN국가들은 수년동안 APEC의 공업국들과 밀 보완적이 되고 있다. <표 7>과 <표 8>에서 보완지수는 ASEAN과 주요 APEC국가들 사이에 무역 흐름의 보완관계가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의 경우에 보완 지수가 1을 초과하는 ASEAN의 보완지수가 일본, 아시아 NIEs, 중국, 및 미국인데 반하여 1991년의 경우에 1을 초과하는 ASEAN의 보완지수는 일본과 파푸아 뉴기니아와의 관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ASEAN국가들이 선진공업국들을 따라잡기(catch-up)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일본의 ASEAN지역으로부터 수입의 대부분은 1차상품이므로 ASEAN과 일본의 보완지수가 높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지역으로부터 일본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본의 ASEAN으로 부터의 수입도 같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ASEAN국가들은 일본의 시장에 침투하기가 어렵다.

ASEAN-PNG사이에 보완지수가 높은 데 이것은 ASEAN의 공업화와 시차를 두고 PNG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할 수가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에 관한 ASEAN수출의 보완지수는 비록 1보다는 작을지라도 1981년과 1991년사이에 개선되어 왔다. 보완지수가 하락한다고 하여 ASEAN과 APEC사이의 무역이 감소한다고는 반듯이 말할 수가 없다. 이 지수가 높은 것은 산업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수가 낮다는 것은 APEC내에서 산업내의 무역이 중요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는 ASEAN과 APEC사

3) Dysdale and Garnaut(1982)에 따르면 i 국의 수출과 j 국의 수입사이의 무역보완지수 (C_{ij})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_{ij} = \sum_k \left(\frac{X_i^k}{X_i} \cdot \frac{M_w - M_i}{M_w^k - M_i^k} \cdot \frac{M_j^k}{M_j} \right)$$

여기서 X_i^k = i 국의 k 상품의 수출; X_i = i 국의 총수출; M_j^k = j 국의 k 상품의 수입;

M_j = j 국의 총수입; M_i = i 국의 총수입; M_w = 세계총수입;

M_w^k = k 상품의 세계총수입.

이의 무역의 흐름의 특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ASEAN에서 선진국의 따라잡음(catching-up)에 따른 이들 국가들의 산업화와 미국, 일본, 한국, 대만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것은 기러기 행태모형 '기러기 형태론(flying geese model)⁴⁾과의 설명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의 연구(Yamazawa, et al. 1991)는 Kojima의 'catching-up product cycle'의 용어를 사용하여 상기 과정이 인조섬유화학 및 철강 생산에 있어서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인조섬유화학에 대한 생산과 소비(P/C)의 비율은 한국과 대만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ASEAN 철강산업의 경우도 5년 내지 10년의 시차를 두고 P/C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역의 흐름은 생산패턴의 보완성과 수출입국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서도 결정된다. 회귀분석의 결과(김기홍 1996; Yamazawa 1991)를 보면, 무역의 흐름은 GDP의 증가율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한 반면에 거리는 負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간의 역내무역은 인접국가들간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SEAN에 있어서 FDI는 투자유치국의 산업구조변화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FDI는 특히 이 지역에서 보완성 및 비교우위의 패턴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와 무역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ASEAN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FDI의 주요 공급국들이다.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자본과 기술이전의 수단으로서 FDI 없이는 'catching-up product cycle'를 설명할 수가 없다. 미국, 일본, 및 동북아 NIEs국가들이 대 ASEAN의 투자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1986-90년의 기간동안에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에서는 FDI의 3/4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FDI의 1/3,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FDI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투자는 부존자원, 저렴한 토지 및 노동력, 및 투자 인센티브에 기인한다.

ASEAN과 아시아·태평양의 기타 지역사이에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은 시

4) 이 이론은 Akamatsu Kaname, 1961, "A Theory of Unbalance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vol. 86, no. 1에 의하여 최초로 전개되었으며 많은 일본학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모형에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학자가 있다. Ippei Yamazawa, 1990, "Gearing the Japanese Economy to International Harmony," *Developing Economics*, 28(March) 및 Kojima, 1973, "Reorganization of North-South Trade: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for the 1970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3(February).

간에 따라서 증가하며 변화되는 비교우위의 패턴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인과 관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FDI를 유인하는 부존자원의 보완성은 투자유치국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것은 다시 초기의 보완성을 잠식시킨다.

ASEAN과 기타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들 사이에 보완관계가 지속되고 ASEAN 국가들이 NIEs를 따라 잡음 (catch up)에 따라서 후자는 수출구조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이동하게 된다. ASEAN과 중국사이에 현재 보완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경쟁관계로 변모할 것이다. ASEAN의 대 중국수출은 고무, 유자유 등과 같은 1차상품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콩, 면화 및 석탄과 같은 1차상품으로 경쟁적이다. 그러나, 경공업 제품에서는 ASEAN-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이와같은 것은 APEC내에 비교우위의 구조가 계속하여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이와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선진공업국에서 탈산업화의 진행에 따라서 ASEAN의 지역에서 산업화의 진행이 심화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일본과 미국에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첨단기술집약적인 제품에 특화를 하고 있으며 원자재 집약적인 제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ASEAN국가들에게 부존자원 집약적인 제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APEC내의 무역이 산업간의 무역에서 산업내의 무역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ASEAN의 경제협력추이와 조직적인 특징

다양한 경제사회구조를 갖는 동남아시아가 ASEAN을 형성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연구의 관심사항이다. 이와 같은 요인을 조직의 유연성의 관점에서 ASEAN의 조직적인 특성과 변천을 검토한다.

ASEAN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태국 등 5개국이 ASEAN 선언에 서명하여 발족하였다. ASEAN은 정치적·경제적인 통합을 위한 공통목표 (경제성장의 가속, 사회발전의 촉진, 문화의 증진)를 향하여 내외의 위협에 대하여 단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조약과 최고의 결기구로서 년차의상회의가 발족하였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1차 산업의 생산·수출국으로서 ASEAN 각국은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하였으며 산업구조가 동질적으로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공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당면의 목표

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협력관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대외관계에서는 ASEAN이 공동행동기능의 작용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일본 및 미국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기구의 개혁을 위하여 1974년 제 7차 각료회의에서는 중앙사무국의 설치, 경제각료회의의 설치, 1975년의 제 8차 각료회의에서는 경제통합을 향한 협력 계획이 제안되어서 76년 발리 수뇌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발리수뇌회의에서는 역내협력의 대강을 기록한 「ASEAN우호협력조약」과 역내협력의 행동계획을 작성한 「ASEAN협력선언」이 조인되었다.

앞의 설립 선언에서는 협력분야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으나 협력선언의 행동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 즉, ASEAN공업추진계획 및 특혜무역거래 등이다. 경제통합을 향한 추이는 타협의 산물이었으나 당초 싱가포르를 ASEAN을 자유무역 지역화를 명확히 하는 경제통합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서 1975년에는 단기적인 목표로서 포괄관세의 인하와 장기적인 목표로서 자유무역권의 형성 (15~20년)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발전 단계가 다른 ASEAN의 자유무역화는 발전 단계가 늦은 국가에 불리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가맹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룬 후에 자유무역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맹국의 공업화를 촉진하는 산업 협력을 바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1976년의 수뇌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주장을 절충한 공업화 협력과 특정 품목의 특혜무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항목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차별적인 무역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관해서는 1977년 1월 초안이 경제 각료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여 동년 6월에 조인되어 7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되어 ASEAN특혜무역을 개시되었다. 당초의 관세를 양허표는 10%이었으며 그 이후의 대상품목의 수는 서서히 확대되었다. 따라서 역내무역이 확대되어서 1992년 ASEAN(싱가포르, 브루나이 제외)의 수출총액의 6%가 역내무역에 해당되었다. ASEAN각국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1차특산품 수출, 소비재산업의 수입대체화 및 기계 및 중간재 수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혜 거래 이전의 일반적인 관세 구조는 수출경쟁력이 있는 1차산품 및 수입에 의존하는 중간재, 자본재는 낮고 수입대체산업 및 수출경쟁력이 없는

1차산품은 높다. 특혜 대상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1차산품(수출선은 주로 역외 선진국)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및 자본재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관세율의 인하가 되는 대상 품목이 확대되어서 역내무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상품목의 자유화 실시 정도와 속도는 각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공업화가 이미 진전된 싱가포르와 기타 국가와는 실시 상황이 크게 다르다. 특혜관세율 및 기타 세율은 실효관세율에서 특혜율을 빼는 방식으로 하며 각국마다 다르다. 공업화 정책에 초기의 경우는 관세보다도 비관세장벽이 문제가 된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ASEAN은 1980년대 중반이후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ASEAN의 1980년대말 이후 경제통합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다. ASEAN의 가맹국들은 초기의 조건과 달리 경제정책과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엄밀한 규칙에 따른 신속한 경제통합은 무리가 있다. ASEAN의 존재의의는 1970년부터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여되고 1980년대말부터 사회주의권의 정책전환과 냉전구조의 종식으로 경제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자유무역지역구상(AFTA)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태평양지역도 포함한 APEC과 관계가 경쟁 또는 보완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Pearl Imada, et al. 1996, 3).

IV. APEC내에서 ASEAN의 역할

1989년에 APEC의 창설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는 경제적인 마찰이 증대되고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통의 불편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 공통이해관계의 토론, 제3국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쌍무적인 문제의 해결, 상호이익에 관한 연구 및 정보의 교환 등에 관하여 논의할 태평양 공동체가 필요하다. 초창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APEC의 회원국은 현재 21개국으로 늘어났다. APEC과 ASEAN과 국제기구로서 서로 경쟁적인가 아니면 서로 보완적인가? APEC은 ASEAN과 관계없는 조직으로서 인정하려고 할 것인가? APEC이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ASEAN이 어느 정도까지 APEC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무역과 투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ASEAN 그 자체가 냉전의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ASEAN국가들은 APEC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ASEAN은 1967년의 냉전기간동안에 안보

적인 이유로 창설되었다. 전략적인 이유로 ASEAN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으로부터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현재 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치상황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ASEAN은 강대국들의 관심권밖에 있게 되었다. 이때 APEC이 ASEAN의 대화 파트너로 포함되게 되어서 APEC은 ASEAN에게 지역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변화되었다. APEC이 느슨한 조직으로 있을 때에만 전자는 ASEAN과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APEC의 조직화가 진행될수록 ASEAN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Chia Siow Yue and Joseph L. H. Tan, eds. 1997). ASEAN의 주요 목표는 비경제적인 분야에 있으며 경제 협력은 단순히 수단이다. ASEAN은 심각한 마찰을 야기하는 경직적인 역내 무역과 투자에 대한 협정을 조심스럽게 회피하여 왔다. ASEAN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무역의존적이며 개방적이다. 그들의 번영은 대부분 다자주의 무역으로 발전하여 왔다.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에 의하여 압도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주 관심사항이다. ASEAN의 자유무역지역(AFTA: ASEAN Free Trade Area) 조차도 역내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ASEAN제품을 국제적으로 경쟁시키는 것이다. AFTA가 ASEAN의 추가적인 경제연결관계를 강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역내 ASEAN의 무역은 총 ASEAN 무역의 5분 1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적인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은 1985년의 19.7%에서 1990년의 17.7%로 하락하였다. 역내 ASEAN무역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 것은 ASEAN기구 밖에서 ASEAN국가들이 취한 일방적인 무역의 자유화 조치에 기인한다. AFTA는 일방적인 무역자유화에 대한 그들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은 집행명령(E.O.; Executive Order) 470 하에서 1995년까지 4단계의 관세율수준 즉, 3%, 10%, 20% 및 30%로 인하하였다. 태국도 6단계로 계단식 관세율을 단순화하는 개혁을 실행하였다. 인도네시아도 관세의 범위를 1985년초 0%와 225%의 범위에서 1993년 0%와 60%의 범위로 낮추었다. 말레이시아도 1988-93년의 기간동안에 1600개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폐지하고 관세선의 14%는 면세, 이들 중 33%는 5%의 낮은 관세로 하고 관세선의 3%만 40%이상의 고율의 관세로 하였다.

APEC은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계속하는 한 ASEAN과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따라서 APEC이 견고한 형태의 지역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에 대하여 ASEAN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V. AFTA와 APEC와의 관계

1.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의 추진배경

(1) AFTA의 의의

아세안자유무역지역(ASEAN Free Trade Area: AFTA)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6개 가맹국이 개방된 지역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역내경제협력확대와 기술적·인적자원의 자유이동을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한 경제통합체이다. AFTA의 모체인 ASEAN은 처음부터 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고유의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을 지향한 것은 아니고,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개발지역주의(developmental regionalism)의 한 형태로 발전해왔다. 특히 1976년부터 산업프로젝트(ASEAN Industrial Project: AIP, 1976),特惠무역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PTA, 1977), 산업보완계획(ASEAN Industrial Complementation Scheme: AIC, 1980), 합작사업계획(ASEAN Industrial Joint Ventures: AIJV, 1983) 등의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기능을 강화해 왔던 것이다. 결국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은 아세안의 성격을 이러한 경제협력의 단계에서 경제통합의 단계로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AFTA의 추진배경

과거 아세안은 회원국간 분업과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각국의 이해상충으로 큰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1990년대 접어들면서 아세안 경제는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형태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세안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이다. UR협상타결이 아세안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자간협상에서 아세안의 교섭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서구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다.

둘째, 중국과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이들 지역으로 선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아세안 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본, 미국 등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분업망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대외적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내국가간 분업 및 특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회원국간 협조체제 결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간 또는 공정간 분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넷째,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아세안이 세계 각국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엔고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향상으로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세안 경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3) AFTA의 추진과정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은 1971년 3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4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르코스 필리핀 전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으며, 또한 1981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 2회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ASEAN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은 조직 형성의 초기의 형태로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각국이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현되기까지는 장애 요인이 많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ASEAN 각국의 자유화 정책 도입으로 각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와도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중기 이후에 자유화 정책의 도입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서도 경제성파가 나타나 이것을 지역 전체로 확대시키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 경제 각료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공통실효특혜관세제도(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를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말레이시아가 EAEF (동아시아경제그룹), 싱가포르가 성장의 삼각 지대구상을 제안하여 자유무역지대형성에 관한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1991년 경제각료회의에서 태국은 AFTA (ASEAN Free Trade Area)구상을 제안하여 합의하였다. 1992년의 제4회 수뇌회의 (싱가포르)에서는 「ASEAN 경제협력에 관한 구조협정」을 체결하여 AFTA 의 설립이 결정되었다. 동시에 CEPT에도 서명하여 AFTA를 추진시키는 것과 동시에 CEPT가 실시되었다. 특혜관세제도

의 핵심은 2003년까지 역내관세율을 5%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96년 11월에는 아세안 산업협력(AICO)도 도입되었다. AICO에 따르면 2개국이상 참여, 참가기업의 현지자본비율의 30% 이상, 해당국 원산지 비율 4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아세안 기업관세율은 0~5%로 삭감되며 비관세 우대조치도 받을 수가 있다. 또 2개국 이상 아세안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자계 기업 포함)은 AICO에 의하여 각국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특혜관세나 산업협력계획같은 조치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형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급속히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자유화 정책으로 경제성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ASEAN에 대량으로 유입된 일본, NIEs 자본은 중국으로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것을 ASEAN으로 회귀시키기 위하여 자유무역권에 의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 투자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세계적인 자유무역 지역의 형성이 진전되어 특히, NAFTA의 형성으로 아시아의 자본이 ASEAN에서 멕시코로 향하게 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그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U와 같은 맥락에서 말레이시아는 ASEAN을 확대하여 EAEG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필리핀의 아세안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인도네시아의 특혜무역협정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 구상, 싱가포르의 성장삼각지대(SIJORI)⁵⁾ 등 아세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은 아세안 각국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증폭시켰고 AFTA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에 1990년 10월에 개최된 제 22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시멘트, 비료, 펄프에 대한 공동유효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1991년 6월 태국의 아닝 수상이 10년 이내에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AFTA 창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적극적으로 지지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지역 형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회원국간 이견을 반영하여 1991년 10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 23차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자유무역지역창설에 대한 태국측 제안의 수정에 합의하게 되었다. 즉, 관세인하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추진수단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공동유효특혜관세를 받아들이며, AFTA추진을 위한 CEPT에

5) SIJORI 는 Singapore, Johor, Riau 로 일컬어 지는 지역의 약자이다.

관한 임시작업반(ITWG: Interim Technical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 of 1992)을 채택하고, 아세안경제협력증진을 위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n Enhancing ASEAN Economic Cooperation)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AFTA의 창설에 합의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개최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 창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창설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Tariff Scheme for ASEAN Free Trade Area : CEPT)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1992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고위관료회의(SEOM)에서 AFTA내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동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 회의에서는 CEPT 시행절차(Procedures for CEPT), CEPT 원산지규정(Rules and Origin for CEPT), AFTA창설을 위한 CEPT협정 해설(interpretative note) 등 3개 협정이 작성되었으며, 관세인하대상 공산품 목록, 예외품목 목록, 관세인하에 관한 일반 원칙(general formula)등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1993년 1월부터 관세인하가 시작되었으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만이 관세인하에 참가하였을 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일부 저개발국가는 자국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가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0월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FTA평의회(AFTA Council) 회의에서는 관세인하 개시 시기를 1994년 1월로 1년간 연기하고, 현재 평균 22%에 달하고 있는 예외품목의 비율을 10%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는 한편 각국은 1994년에는 전체 관세분류품목의 2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UR협상타결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은 관세인하 시기의 단축 문제와 예외품목의 축소, AFTA 대상국가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A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인하 완료시기를 단축키로 하고, 관세인하 진척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내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AFTA실무위원회(AFTA Unit)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2. 공동유효특혜관세의 원칙

1992년 1월 아세안 6개국에 의해 채택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을 위한 공동유효관세 협정과 1993년 10월 제25차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을 중심으로 CEPT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세인하 대상품목

CEPT에 따른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공산품과 가공 농산물을 포함하는 모든 제조상품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농산물과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제조상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혜 무역협정에서는 회원국이 양자간 협상을 통해 품목별(item by item)로 특혜 관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협상 결과에 따라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관세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CEPT에 있어서는 HS6단위 수준의 부문별 기준(sectoral basis)을 채택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PTA의 적용을 받던 품목 중 공산품과 가공농산물은 새로운 CEPT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PTA규정에 따라 현행 특혜관세폭(Margin of Preference : MOP)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관세인하 일정

CEPT에 따른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관세인하 일정에 따라 일반관세인하 품목과 조기관세인하 품목으로 나누어 진다. 단, 일반관세품목의 경우에도 특정품목에 대해 일부 회원국간 합의를 거쳐 조기에 0-5%로 인하할 수 있다. 일반관세인하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은 두단계로 나누어 관세인하가 실시된다. 먼저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5년 이내에 20%까지 인하하고, 그 후 5년 이내에 0-5%로 인하하여야 한다. 관세율이 20% 이하에 달할 때까지 『(현행관세율-20%)/5년』의 공식에 따라 매년 동일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된다.

현행 관세율이 20%이하인 품목은 1998년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하며, 인하 개시시기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매번의 관세인하시 최소한 5%이상을 인하하여야 한다. 조기관세인하(fast-track cut)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년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관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1998년까지 0-5% 수준으로 인하하여야 한다.

(3) 예외품목의 인정

CEPT협정 제2조 3항에서는 예외품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단위보다 소분류 단위에 대해 CEPT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즉, CEPT가 적용되는 제조상품의 기본단위는 HS 6-digit 수준의 부문별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HS 8 digit 또는 9 digit 수준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CEPT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간에 상호 관세인하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예외품목은 일반관세인하 품목뿐만 아니라 조기관세인하 품목에 까지 적용된다.

잠정적 예외품목(temporary exclusions)에 대해 CEPT 제 2조 3항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상황 및 수출입 상황을 고려하여 CEPT의 적용이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 품목과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 잠정적으로 CEPT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품목으로 인정한 회원국은 동 품목에 대해서 타 회원국간 적용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잠정예외품목은 1995년부터 매년 20%씩 축소하여 1999년에는 제외품목을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일반적 배제(general exceptions)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도덕의 유지, 국민의 건강 보호, 동식물의 보호, 예술품, 문화재 및 유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원 각국이 독자적으로 CEPT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CEPT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9월에 개최된 제 2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미가공농산물을 관세인하 대상품목에 포함시키면, 긴급제외품목(잠정제외)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각국은 종전의 예외품목을 상당부분 축소하여야 한다.

(4) 원산지 규정

현재 아세안 각국간의 관세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화하였거나 저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상대적으로 고관세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역외국가의 상품이 싱가포르를 경유, 고관세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국가로 유입되는 무역균절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산지규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원산지비율과 관련하여 아세안내 40%와 최종 수출국 25%의 원칙을 요구한 반면, 싱가포르는 아세안내 부가가치 누계 40%의 원칙을 요구하였다.

아세안 특혜무역협정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CEPT협정 제 2조 4항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부터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싱가포르가 주장한 역내 부가가치비율 40%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즉, CEPT에 따른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 국가 또는 아세안내 부가가치비율의 누계가 40% 이상이어야 한다.

(5) 비관세장벽의 철폐

①수량제한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CEPT 제 5조에서는 CEPT협정의 시행과 병행하여 CEPT대상품목에 대한 모든 쿼타, 수입허가 등 수량제한조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관세인하 종료 후 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여타 비관세장벽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외환규제의 완화

CEPT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대금 결제와 관련된 외환규제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고, GATT 제 18조 및 IMF의 관련규정에 따라 외환의 송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③기타 분야의 협력

이외에 무역자유화를 보완하기 위해 제품의 검사와 보증의 상호 인정, 외국인투자 장벽의 제거,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의, 공정경쟁규칙의 제정, 벤처 캐피탈의 촉진 등의 분야에서 역내의 국가와의 협력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6) 긴급제한조치의 인정

CEPT의 실시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긴급제한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CEPT 시행품목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 및 경쟁상품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수입국의 외환감소 현상이 초래되는 경우 아세안 해당 각국은 수량제한 등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록 인정하였다.

3. AFTA, ASEAN과 APEC와의 관계

제조업제품이외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것(노동이동 및 투자 등을 포함)은 애매하며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것으로 AFTA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ASEAN각국의 경제협력과 비교가능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협력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4년까지 관세인하개시 및 일시제외품목의 축소 등에 관하여 93년 발족시까지 합의에 도달하였다.

ASEAN에 대한 비판론은 다른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하여 애매하고 무리하게 참가한 경우가 있어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지금까지 내용은 ASEAN의 성립에서 지금까지의 특징, 다양한 경제사회구조로 인한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 등을 검토하였다. 경제발전 단계가 동일한 선진국의 경우는 엄격한 제한과 시간을 제한하는 자유무역 협정을 실시할 수가 있었으나 (EC의 경우도 가맹국이 증가함에 따라서 규정을 완화하고 시간을 다소 조정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고 가맹국의 의지통일이 중요하다.

APEC에 대한 ASEAN의 자세는 ASEAN의 조직에 있어서 APEC이 ASEAN의 상위에 있는 조직으로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APEC이 엄격한 협정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선진국의 의지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와 구미에 있어서 조직 및 제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가 발전에 자신을 얻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아시아적인 조직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인식에도 그 배경이 있다. APEC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이외의 ASEAN국가들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APEC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NAFTA와 같은 형태로 진전되면은 참가가 불가능한 국가가 나타날지 모른다. APEC은 ASEAN을 포함하고 있으나 ASEAN의 상위의 조직은 아니다. 말레이시아가 제창한 EAEC (동아시아경제협력체)는 ASEAN의 조직적인 특성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한 협의체적인 조직으로 합의에 의하여 지역발전에 관한 것을 서서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ASEAN에 베트남이 95년에 가입을 하였다. 베트남은 자유화정책을 실시하여 사회주의정당이 권력을 장악한 국가로서 ASEAN에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SEAN의 조직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VI. 맺는 말

국제적인 지역통합은 다양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의 형태를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는 단순한 이론으로 도식화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지역블럭이 무역을 자유화시키는 "Building Blocks", 또는 그것을 방해하는 "Stumbling Blocks" 인가? 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역주의는 시장의 제한된 영토에 대한 통합을 보호하기위한 방어적인 기구인가? 또는 다자주의의 무역을 촉진하기위한 기구인가? 라는 문제에 귀착된다.

현재 APEC내에는 크게 나누어 4개의 소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 ASEAN국가들로 구성된 AFTA, 북미 3개국의 NAFTA, 호주-뉴질랜드간에 체결된 ANZCETA, 칠레와 멕시코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등이 APEC회원국들로 구성된 소지역협정들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과거 30년 동안 지역협정을 통하여 다른 이웃국가들에게 양의 파급효과를 미치며 전실한 경제 성장을 하여 왔다. ASEAN국가들은 일본과 동북아시아 NIEs 국가들의 산업구조 변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ASEAN의 비교 우위 패턴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내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APEC과 ASEAN과의 경제 관계는 이 지역의 무역이 산업간의 무역에서 산업내의 무역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경제관계서 보완관계로 진전이 되고 있다. ASEAN은 다자간의 무역체제로 발전과 번영을 하였다. 그러나, ASEAN은 현재 세계 교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너무 적고 약해서 다자간의 무역체제를 유지시킬 수가 없으며, EU와 NAFTA와 같은 신지역주의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 APEC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따른 모든 경제적 혜택을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역외국과 공유하는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을 추구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다자간 교역체계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 예로서 ASEAN과 기타 APEC국가들과의 강한 무역관계는 무역 강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가 1980년과 1991년 사이에 하락하였지만, ASEAN-5와 미국, 일본 및 중국, 그리고 ASEAN-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과 아시아 NIEs(싱가포르 포함)들과의 사이에 무역의 면에 있어서 1보다 크다. ASEAN-5와 APEC 전체와도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81년의 경우에 무역보완 지수가 1을 초과하는 ASEAN의 보완지수가 일본, 아시아 NIEs, 중국, 및 미국인데 반하여 1991년의 경우에 1을 초과하는

ASEAN의 보완지수는 일본과 파푸아 뉴기니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타났
다. 이것은 ASEAN국가들이 선진공업국들을 따라잡기(catch-up)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맥락에서 APEC과 ASEAN은 상호 보완경쟁관계에 있
게 된다.

APEC이 엄격한 협정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선진국의 의지로 운영되고 있
다. 최근 아시아와 구미에 있어서 조직 및 제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
은 아시아가 발전에 자신을 얻은 것도 한 요인이지만, 아시아적인 조직의 발
전을 추구하려는 인식에도 그 배경이 있다. APEC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이외
의 ASEAN국가들이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APEC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NAFTA와 같은 형태로 진전되면은 참가가 불가능한 국
가가 나타날지 모른다. APEC은 ASEAN을 포함하고 있으나 ASEAN의 상위
의 조직은 아니다. 따라서 APEC과 ASEAN간의 연결은 아·태 지역 전체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는 다른 수단이 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홍. 1996. "동아시아 경제권의 무역행태 연구." 『동북아 경제연구』.
- 노재봉. 1993.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安豊模. 1994. 『日本の 對아세안 進出 및 現地化戰略』. 産業研究院.
- 楊平燮. 1994. 『아세안自由貿易地帶의 形成과 우리의 對應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韓國貿易協會. 1996. 『베트남進出가이드』.
- Abe, S. 1994. "Prospects of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gional Integration in the Americas and the Pacific Rim, Kobe University, 28-30 March.
- Ariff, M. 1993. "AFTA: An Outward-Looking Free Trade Agreement." *PITO Economic Brief*, no. 14. Honolulu: East-West Center.
- Bank of Thailand. *Annual Report*. 각 연도.
- Balassa, Bela. 1991. *Economic Policies in the Pacific Area Developing Countries*. Macmillan.
- Bhagwati, J. N. 1991.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An Overview." *New Dimensions in Regional Integrati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BPS). *Monthly Statistical Bulletin*. 각 연도
———. *Statistik Industri Kecil 1979, 1982*.
———. *Sensus Ekonomi 1986, 1989*.
- Chia, Siow Yue, ed. 1995. *APE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ysdale and Garnaut. 1982. *Asia Pacific Regionalism: Reading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Harper Collins.
- Drysdale, Peter and Ross Garnaut. 1994. "Principles of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Ross Garnaut and Peter Drysdale, eds. *Asia Pacific Regionalism*, 48-61. Pymble, Austraklia: Harper Educational Publishers.
- Dutta, M. 1996.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in Asian Economies: Has

- It Reached Its Ceiling? Some Remarks."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7. No. 3.
-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Report on the Census of Industrial Production*. 각 연도.
- Fishlow, Albert & Stephan Haggard. 1992. *The United States and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OECD.
- Frankel, Jeffrey. 1994. "Is Japan Establishing a Trade Bloc in East Asia and Pacific?" Mitsuaki Okabe, ed.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Economy: Change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onts*. New York: Macmillan.
- Harberger, Arnold C. 1996. "Reflections on Economic Growth in Asia and The Pacific."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7. No. 3.
- Hobby, Michael. 1995. *Innovation in East Asia: The Challenge to Japan*. Edward Elgar.
- Haggard, Stephan and Moon Chungin. 1990. "The State,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ostwar South Korea." *World Politics*, Vol. 42.
- Imada, Pearl, Manuel Montes, Seiji Naya. 1996. *A Free Trade Area: Implications for AS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ahler, Miles. 1995.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gration*.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MIDA). *Annual Report*. 각 연도.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hilippine Yearbook*. 각 연도.
- National Census and Statistics Office(NCSO). *Census of Establishments*. 각 연도.
- Nesadurai, Helen E. S. 1996. "APEC: a tool for US regional domination?" *The Pacific Review*, Vol. 9, No. 1.
- World Bank. 1995. *World Development Report*. Washington, D. C.
- Yamazawa, I., and A. Hirata, K. Yokota. 1991. "Evolving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acific Economies." M. Ariff, ed. *The Pacific Economy: Growth and External Stability*. Sydney: Allen and Unwin.
- Yue, Chia Siow and Joseph L. H. Tan, eds. 1997. *ASEAN in the WTO: Challenges and Responses*. ISEAS.